내년 성장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美 기관들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금융연구원 등 '1%대 중반' 예측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내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목표"라고 언급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 성장률 전망 대세는 1%대 =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대세는 이미 1%대로 낮아졌다.

10~11월까지만 해도 3%대가 많았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 하강 속도가 급해지면서 2% 성장이 어렵다는 예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7%로 예상했다. 이는 10월 29일 전망치인 3.4%의 절반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보고 최종 수치를 조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전망치도 평균 1.2%에 불과하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내놨다. 이는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1.9%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수치다. 글로벌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곧바로 1%대로 하락한다는 뜻이다.

이미 글로벌 경기는 예상보다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4일 "제2의 대공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마이너스 성장 현실화할까 = 이미 일부 기관들은 한국경제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2009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0.2%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증권은 지난달 2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급감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는 1~20일 중 26%가 줄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내년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론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

중앙대 신인석 교수는 "내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으로는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품질 'NHQ 농협인증쌀' 출시 농협은 23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최고 품질 맞춤형 쌀인 'NHQ 농협 인증쌀'을 출시하고 이날부터 수도권 하나로클럽 5곳에서 판매에 들어갔다. 'NHQ 농협 인증쌀'은 선도농가와 100% 계약재배 및 엄격한 재배과정을 거쳐 완전립비율 96% 이상, 품종순도 90% 이상으로 생산해 낸 최상위 품질 수준의 맞춤형 쌀이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 후 부실' 면책 검토

금융위, 기업 자금난 완화 … 은행 일선 창구 권한 확대

금융위원회는 24일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은행 일선에서 신속히 대출할 수 있도록 고의나 과실이 아닌 부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서 감독당국이나 은행장들이 대출을 독려해도 은행 일선에서 선뜻 대출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창구직원들이 대출을 해주고 난 후 부실이 되더라도 성과평가나 책임문제 등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책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실이 되더라도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안되고 면책이 되게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용보증기금서에서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빨리 보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경제 내년 U자형 회복"

삼성경제硏 사장 밝혀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24일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사장단협의회에서 '위기시 경영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은 금융위기에서 실물위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모든 정부들이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고, 마치 '스위스 만능칼식 접근법(Swiss Army Knife Approach)'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미국은 2007년 12월부터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해 전후 가장 긴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2010년에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있어서 내년은 바닥을 다지는 해이며, 상반기에는 군살을 빼고 하반기에는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BM, 도요타, GE, 노키아, 미츠비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극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선택과 집중, 중앙돌파형 리더십, 상생협력, 전략적 비용관리, 위기 뒤의 기회에 대비한 체질강화 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CD 금리 3%대 급락

3년만에 최저치 … 주택대출 이자부담 줄듯

각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지속,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3.98%로 거래를 마감했다. CD 금리가 3%대로 하락한 것은 2005년 12월 7일 이후로 3년 만이다.

CD 금리는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린 직후 0.69%포인트 급락했고 16일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시장에 2조 원을 공급하면서 0.25%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17일 0.15%포인트, 18일 0.10%포인트, 19일 0.05%포인트, 22일 0.10%포인트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만 1.46%포인트가 급락했다.

이같은 CD금리의 하락세는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조치가 병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시장안정화 조치 주요내용' 자료에서 "'기준금리→CD 등 단기금리→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금리파급 메커니즘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은행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무선 인터넷 전화시대 '활짝'

방통위, 와이브로에 010번호 부여키로

내년말 같은 010번호를 사용하면서 이동전화보다 통화료가 싸고 휴대전화 단말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무선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시장이 열린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사업자인 KT는 이미 시장진입을 예고하고 종합통신기업으로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도 와이브로사업 진출을 저울질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에서 음성통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010' 번호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동통신 시장을 놓고 향후 KT를 축으로 한 와이브로 진영과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와이브로는 국내 기술로 개발돼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됐으나 유·무선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된 탓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개발, 제조업체의 단말 개발 및 정부의 제도 정비 등에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와이브로 음성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12월쯤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힘빠진 주가

대내외 악재 코스피 15P ↓

주가가 사흘째 하락했으나 원화 값은 강세를 보였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5.80포인트(1.38%) 내린 1,128.5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5.03포인트(1.48%) 내린 333.73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하락에 4.23포인트(0.37%) 내린 1,140.08로 출발해 건설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공포가 확산되며 낙폭을 키웠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이틀재 순매도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내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1.50원 급락한 1,306.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

기아차 신임 사장에 서영종씨

기아차는 신임 국내 판매 및 생산 담당사장에 현대파워텍 서영종 사장〈사진〉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출신인 서 신임사장은 1952년생으로 건국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현대정공에 입사했으며 현대모비스 모듈사업본부 부사장과 현대파워텍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기아차 조남홍 국내 담당사장과 김익환 총괄 부회장은 최근 사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차량인도 1개월안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자동차회사가 차량을 인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넘기지 않으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이런 내용의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연합뉴스